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0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0. 다 감사 드리세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침묵보다 말로써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았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 이웃들에게 다가섰지만, 그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힐 때가 많았습니다. 불친절한 응대를 견딜만한 내적인 평온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고요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주시오.

주님, 힘겹기는 해도 삶이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진리와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사58:11	인도자
----------------	--------------	-----

♠ 교 독 문	44 요한복음1장	다함께
---------------	-----------------	-----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	---------------------	-----

대표기도	I .	II. 윤석철 장로
------------	-----	------------

응 답 송	성가대
-------------	-----

찬 송	452. 주는 귀한 보배	다함께
-----------	---------------------	-----

성경봉독	I . 눅 17:20-21	인도자
------------	----------------------	-----

	II. 전 5:1-3	김용진 권사
--	-------------------	--------

찬 양	성가대
-----------	-----

말 씬	I . 돌봄과 복돋움	김기석 목사
-----------	-------------------	--------

	II. 변화를 향해 마음을 열라	김기석 목사
--	-------------------------	--------

거둠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468.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속에서 살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쓸데없고 경박한 말들을 피하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우리 생각을 거룩의 길로 인도해주십시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식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릇됨과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축제가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 강좌(45)	에베소서 강해(14)
기도 : 조관행 집사	기도 : 정경례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인도자 한상익 장로	인도자 구명자 권사

7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인걸	박석희	송양진	이증자	이건화
	헌금위원	윤석철	이인웅	김준호	곽혜자	배상순	박혜경

책무를 분담하리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교훈은 쉽게 실천하게 되지 않는 반면에,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 던지고, 바른눈이 범죄하거든 바른눈을 빼어 버리라”는 명령은 어느 정도까지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하려는 열기도 높음을 경험한다. 소극적으로 가기가 쉬운 까닭인 듯하다.

과거 우리의 신앙 생활은 대부분이 단절하는 생활이었다. 그리스도와 그 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골육의 친척을 단절하였고, 청교도주의적 도덕을 구별하지 못하는 제자를 파문하였으며, 사회 평판이 좋지 않게 되어 [성서조선]지에 누를 끼치게 하는 친구를 절교하였고, 기타 얼마든지 똑똑 잘라버리려고 하는 결심이 있었다.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잃음으로써 본체의 생명을 완전히 보호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수족과 눈·코를 절단하는 것이 비교적 순결한 생명을 보전하는 까닭인 줄로 알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주위에는 소수일망정 품행 방정하고 신의가 돈독하며 기품이 고결한 자, 즉 누가 보든지 대표적 조선인이요, 모범적 크리스천이라고 할 만한 몇 명이 남았다. 이런 현상을 보는 이들은 과연 신앙적이라느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느니 하는 찬사도 보내며 미결 중에 있는 문제의 인물을 마저 결단해 버리라고 격려도 하였다. 우리는 점점 더 용기를 내어 이 방향으로 매진할 뻔하였다.

이때에 커다란 모순이 눈에 띄었다. 예수의 식탁에는 세리와 창기 및 죄인과 가난한 자들뿐이라고 시비를 들으셨는데, 우리의 식탁에는 누가 언제 보아도 이런 친구를 가졌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만한 쟁쟁한 인사들만 남았다. 무의식중에 스스로 의인을 자처하는 무리들이요, 우리를 악의로 보는 다른 사람들 또한 가히 그렇겠다고 인정할 만한 위인들이다. “자기만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無友不如己者)라는 걸치레의 말 중에서 어느덧 우리는 교우의 귀족주의자요, 부르주아요, 독선주의자가 되어 버렸다. 심히 두려운 일이다.

이제 후로 우리는 교우의 표준을 변경하리라. 사람들이 의외로 알 만한 교우의 도를 개척하고자 한다. 친척과 옛 친구 중에 신의를 상실한

형제여, 우리는 그대를 다시 한번 만나 볼 필요를 느끼는 자임을 알라. 인생의 삼엄한 큰 바다에서 파선하고 눈물 뿌리는 친구여, 그대의 우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있음을 잊지 말라. 우리의 친구로 행세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대의 신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그럴 리가 만무하겠지만) 온갖 종류의 험잡꾼들도 주저 말고 오라. 우리는 그대에게 속고 그대에게 이용되리라. 명예를 느낄 만한 벼들을 구하여 우리의 대외 신용을 강화하며 체면을 미화하려던 일을 단념하고, 오늘부터 우리는 치욕을 억제하기 어려운 자들을 택하여 그대의 책무와 치욕을 나누어지고자 기원한다. 병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 예수와 함께 온갖 친한 자, 낮은 자, 추한 자 사귀기를 간절히 구하노라.(1937년 4월)

성도의 릴레이

<히브리서> 11, 12장을 읽는 이는 누구나 일대 경기장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기 중에도 최후의 총괄적 승부를 다투는 릴레이 경기와 흡사함을 알 것이다. 스타트를 맡았던 아벨은 배턴을 에녹에게 주었고, 에녹은 노아에게, 노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모세에게.....연연한 믿음의 선수들은 각자의 당한 코스를 힘껏 잘 뛰었다. 그리고는 맡았던 배턴을 다음 선수에게 실수 없이 넘겼다. 이제는 우리가 배턴을 받을 차례를 당하였다. 이제 내가 뛰어야 할 차례이다.

“때에.....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렀으니, 마땅히 모든 거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음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달음박질 마당에서 달리며 믿음을 주장하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히11:1-2)는 소리가 들린다.

나의 뒤에도 뭘 선수가 남았을는지 모르고, 혹은 내가 ‘마지막 주자’로 뛰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릴레이의 승부는 나중에 뛰는 사람일수록 그 책임이 더한 법이다. 과연 우리가 이 큰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오직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동정과 응원의 진을 굳세게 벌렀으니 우리는 힘껏 뛸 수 있으리라.”(1939년 2월)

—김교신, <<조와뱀>>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멧 새

멧새가 우리 집에 등지를 틀고
한 그루뿐인 나무에 알을 낳다
우리는 그 새를 쫓아낼 생각도 않고
보금자리 짓는 걸 구경하고
알 낳는 걸 감독했다.
그리고 멧새는 주인을 가장하고 돌아와서
집주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설교했다
멧새는 서쪽에서 왔다고들 한다
폭풍이 바다에 갈매기들을 쓸어 넣고
어부들이 등불로 그물을 말리는 곳에서,
그 설교는 바로 우리에게 대한 예언이며
우리의 새로운 지평선은 그 등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성체(聖體)를 받는 자들의 기도와 응답에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매일 새 집을 찾고 있다
새로운 제단을 위해, 멧새의 배설물로 더럽혀진 옛 성소를
재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코피 아우너[아프리카 시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한상익 정영선 이광용 형인순 정복순 박애순 이봉욱 정완수
김재광 배상순 임 영 정경례 김혜권 박영희 임보람

월정헌금:

이지훈 김홍기 최주환 문복순 이정은 박정석 고숙이 김미순 이갑재
김정섭

감사헌금:

윤정덕 구성실 한상익 정영선 이승영 이지은 김필순 김흥순 김정섭
백묘현 하정석 하인경 무명1

생일감사헌금: 안정숙 구도헌금: 김철수 무명1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심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7월 정기임원회가 열립니다.
2. **수련회** :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철원에 있는 은혜 교회에서 열립니다.
3. **새벽기도** : <잠언 강해>를 마치고 28일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합니다. 신앙 인물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조망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신앙실천** : 깨끗하고 검소하고 유익한 휴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 식당 봉사 : 시온숙

* 헌화 : 박홍재 권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